

부활 제3주일

제1독서 : 사도 5,27b-32,40b-41

제2독서 : 묵시 5,11-14

복음 : 요한 21,1-19

# 순정이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워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 받게 하셨습니다.” (사도 5,31)

## 강론

### 잘 돌보아라

김진철 신부/소양 천주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기는 산과 들에서 풀과 나무들이 꽃을 피우는 때와 잘 맞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앙상한 나뭇가지에 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 예수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갔고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가 헛된 환상이라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다시 나타나셨으니,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주님을 만나러 간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알만 합니다.

일 전에 꽃씨를 조금 구해다 화분에 심었습니다. 화단에 꽃나무가 적어 삭막하게 느껴져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주었는데도 싹이 안 올라 왔습니다. 다 죽은 것인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싹 하나가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 기쁘고 신기하였습니다. 인젠가 때가 되면 심어 놓는 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겠지요.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죽기 위해선, 다시 말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겠다는 평범한 사실이 새삼 묵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과 물 그리고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꽃에 대한 관심, 사랑이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우리 각자도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봉사직의 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꽃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듯 세례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신앙의 씨앗을 잘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믿음과 친교, 나눔으로 잘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잘 가꿔진 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듯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 소리

### 어지러운 정치판

뭐가 뭔지 모르겠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이 너무 어지럽다. 선거철이면 정계에 어느 정도의 이합집산 현상은 으레 있는 일이지만 좀 심한 것 같다. 잇따른 탈당과 입당, 당대 당 통합에 경선을 한다 안 한다로 당마다 잡음이 많다. 왜? 어떤 기준으로 철새가 되어 오고 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경선을 하면 하는 것이지 제한적 경선은 무엇이며, 청심이나 김십이란 또 무엇이고, 낙점이란 또 무슨 말인가, 거기다 사전 내정이라니, 혼란과 반발만을 안겨줬을 뿐 원칙 없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정당이 공조적인지 사조적인지, 신뢰는 고사하고 위신마저 망가뜨리는 처사와, 입장과 기준도 모호한 입·탈당의 물결은 보기도 사납다. 도대체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무시한 후 정신차릴지 두고볼 일이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자세로, 어떤 옷만 입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떡 줄 사람은 미동도 없는데 김치국을 마시는 격이다. 무엇이 나라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날뛰는 최근의 정계 움직임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이념과 정권이 편이한 정당이 합치고, 한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길을 달리 해도 우리는 잘 한 일이라며 박수치고 환호했으니까... 길 잘못들인 죄값을 치를 수밖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요한 3,19-21) 

### 순정이 산책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자.

# 노동절의 역사와 의의

장상원 신부 / 창인동 천주교회

내일(5월1일)은 세계 노동절 105주년인 되는 날이다. 그리스도적인 생활양식으로 오늘도 말없이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본받으며 노동절의 역사와 의의를 살펴본다.

## 1) 노동절의 유래

노동절은 매년 5월1일, 전세계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를 통해 노동자의 힘을 과시하는 단결의 날, 투쟁의 날, 국제연대의 날이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겨우 목숨을 이어갈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인간 이하의 노예적 생활과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단결해 나갔다. 1886년 5월1일, 미국 전지역에서 34만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경찰은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아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데 이어 5월4일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집회에서도 200여명을 학살하였다. 이 사건을 빌미로 경찰과 기업주는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을 체포하고 각지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폭동죄, 음모죄로 체포 및 기소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켓 사건이다.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츠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만일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인가?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은 이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그들의 죽음은 이후 미국 노동은 물론, 세계노동 운동의 꺼지지 않는 들불로 타올랐으며 1889년 7월 파리에서 세계 20개국의 노동조합 대표가 모여 개최된 “국제노동자 대회”에서 5월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였다. 이는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미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을 전세계에 확산시키기에 이르렀다.

## 2)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노동절 행사는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23년,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연맹회”의 주최로 2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개최했으며 해방 후인 1947년까지 노동절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948년 미군정의 탄압으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불법화됨으로써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한 노동절의 의미가 퇴색하였다. 1959년부터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주적 조직인 ‘전평’을 깰 목적으로 급조된 ‘대한 노총(현 한국노총)’은 이승만 정권의 비호 속에 5월1일 세계 노동절을 3월1일로 바꾸어 버렸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은 그나마 꺾데기만 남아 있던 노동절의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렸다. 정권과 자본은 세계 노동절을 통해 고양되는 노동자 의식과 단결력, 국제적 연대가 두려웠으며 “노동자”라는 말이 노동자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정치의식을 일깨울까 두려웠기에 오직 희생과 순종만을 미덕으로 하는 근로자라고 그럴듯한 포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1989년 70여 노동조합과 30만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4월 30일 세계 노동절을 개혁한 것이다.

정부는 94년 3월 9일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개정, 선포하였다. 이는 노동절 기념대회를 힘차게 벌여온 우리 노동자들의 힘과 요구를 더이상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남은 과제

올해는 세계 노동절 105주년인 되는 시점에서 민주노조 진영은 민주노총 건설을 결의하고 정부와 자본의 임금 억제 정책, 고용위협 등을 지지하고 노동자의 걸림돌인 노동법 개정 투쟁을 통해 제3차 개입금지 및 복수 노조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95년 임금·단체협약투쟁과 사회개혁 투쟁을 주요사업으로 의료보험 통합, 교육개혁, 재벌규제, 연금개혁, 세계개혁 등이 5대 과제로 한 내용을 통해 노동자 생활과 권리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을 옹호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세계화”란 구호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안전시설이 미비한 현상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작년 한 해만도 246명이 사망하고 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자가 3만여 명에 이르는 데도 이들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이젠 노동운동이나 노조활동이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었던 노동형제들의 공동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개별 직업에 따라 참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 투쟁은 정의로운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노동하는 인간, 20항)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회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섭)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75-5411  
 호출기 012-682-0046

신장개업  
**이리 삼부가스**  
 조 정 숙(세실리아)  
 영등동 273-7번지  
 ☎(0653)52-3082,857-6673

**제 일 주 단**  
 남·여 고급한복, 혼수 일체  
 <교우 특별 우대>  
 강 성 만(야고보)  
 안 순 임(세실리아)  
 군산시 평화동 65-21(축협앞)  
 ☎(0654)42-0430, 2148

**에 덴 사**  
 도장, 고무인, 자동명함, 마스타,  
 청첩장, 붓글씨, 각종인쇄, 스티카,  
 상패, 명패, 트로피  
 김 영 일(크리스토 폴)  
 동부시장 사거리(이동통신앞)  
 ☎ 88-2668  
 호출기 012-671-4590

잡간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모악산 자락을 레지오의 깃발과 함성으로

오는 5월 5일!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교구의 모든 식구들이 친교와 화합과 일치... 모악산 자락을 레지오의 깃발과 함성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 \*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5월 1일부터 4일까지 '하나되게 하소서'를 지향으로 목주기도 5단씩 매일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황성하의 전대사 특은을 받기 위해서, 레지오 단원들은 고백성사, 미사·영성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행사장에 아무리 늦어도 8시30분까지는 입장해야 합니다. 비가 올 경우에도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 꾸리아에서는 참가 목표 인원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지오 단원이 아닌 신자들도 함께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점심 식사는 개인별 혹은 프레스디움별로 간편한 도시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쓰레기는 남김 없이 가져가야 합니다(각자 비닐봉지를 준비). 운동장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므로 프레스디움별로 야외용 깔판을 몇 개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로 준비해야 할 것: 레지오 수첩, 목주, 도시락, 봉헌봉투, 비닐 봉지

● 전주교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
■ 일시: 5월5일(금) 오전9시 ■ 장소: 전주해성 중·고등학교
- 많 · 은 · 참 · 여 · 를 · 바 · 랍 · 니 · 다 -

교구소식

- ※ 성소주일 2차 헌금: 5월7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1. 축! 견진: 5월6일(토) 오후4시 서학동 성당
2. 천호 피정 안내: 5월6일~7일 주제-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 강사-김정수 신부, 문의 73-6600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5월6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4. 가톨릭 언론인, 방송인회 모임: 5월7일(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5. 사제 부모님회 1일 피정: 5월7일(일) 오전10시30분 차명자산 성당, 지도-범석규 신부, 신청-5월5일(금)까지 교구청 성소국(85-0041~3) <사제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웨끌라레 모임: 5월7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대상-관심있는 모든 이
7. 종교음악 연구회 정기교육: 5월1일(월)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8. 이명재 신부 주소 안내: 경기도 송탄시 이충동 현대A.P.T 106동 401호
9. 성모의 기사회 모임: 5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10. 축! 영명: 3일(성필립보, 야고보) 성민호, 김동준, 박병준, 한병헌 신부님
※ 치명자산 성당 봉헌 1주년 기념미사: 5월9일(화) 오전5시30분 주례-이병호 주교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요십이 (1130) 김병오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이 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오환(요한)
양진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샵
☎ 222-1723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4월30일 오후2시
· 장소: 삼랑진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성서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남태(바오로)
김윤태(돈보스코)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0653)842-2604~5.54-9504
아남서비스 834-2628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84-6085, 223-5823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합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삼삼(발라바)·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젱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부활 제3주일
- ◎ 이리 어양동본당 성전건립을 위한 2차헌금
- 1.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4일 저녁미사 후
- 2. L.M 40주년 행사: 5일 전 9시 전주해성교  
\* 전단원 참석바람.
- 3. 사목회 상임: 5일 저녁미사 후
- 4. 비품마련 특별헌금 신입액: \* 소계-48만원 \* 1,801만원  
봉헌액: 손덕만-1만원, 조부식, 오윤자, 최 환, 세실리아회-각 10만원, 정혜숙-2만원, 전정남, 이정선-각 3만원, 익명, 박삼순-각 오만원. \* 소계-59만원 \* 누계-1,189만원
- 5.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희장 모임(4일 전 10시30분)  
③울브레아(7일 장엄미사 후)
- 6. 세실리아회에 익명으로 비품 기증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 7. 축! 혼인: 7일 전 11시30분 신랑-강세권(가브리엘)군  
신부-배선희(모니카)양
- 8. 금주 청소: 기린봉 2.3만  
차주 청소: 중노 13,15만
- 지난주 봉헌금: 1,044,430원  봉헌금: 1,090,000원
- 2차헌금: 352,62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증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 금주 모임 안내: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강당
- 2. 차주 모임 안내: 자모회-5월3일(수요일) 회합후, 장소-강당  
청년회-5월7일(일요일) 저녁미사 후, 장소-회합실  
꾸리아-5월7일(일요일) 후 2시, 장소-강당
- 3. 견진성사 안내: 5월6일(토요일) 후 6시
- 4. 성령묵상회 안내: 5월1일(월)~5월4일(목) 후 8시~10시
- 5. 청소 안내: 금주-정의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옵 어머니
- 6. 성전역사 성금내신 분: 진명식(요한) 100,000, 이화옥(스테파노) 200,000, 손점순(아네스) 100,000, 박장준(무가) 300,000, 김순희(부시사)외 3명 150,000. 계: 8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046,750원  교무금: 1,482,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1. 5월은 성모성월: 매일 미사 전(후)에 합동으로 묵주기도 바칩니다.
- 2. 예비신자 인도 기간: 5월1일~18일(한 가정에 한 분씩 인도함시다)
- 3. 성조주일 2차헌금: 5월7일(다음주일)
- 4. 성체강복: 5월 4일(목) 저녁미사 후
- 5. 레지오 마리아 40주년 기념행사: 5월 5일(금) 오전 9시 해성학교 단원 및 협조단원 꼭 참석바랍니다.
- 6. 모임 안내: 울브레아-5월 2일(화) 저녁미사 후  
성우회, 대전회-5월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5월 7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7. 효도관광: 5월9일(화) 장소-수안보 온천, 단양 팔경, 출발-성당에서 7시반, 선착순 접수 좌석 배정, 대상-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교통비, 중식, 음료수는 본당에서 준비)
- 8. 미사시간 변경: 5월 7일(다음주일)부터 모든 저녁미사가 7시 반으로 30분 늦춰집니다.  
성당 청소: 5월 6일(토) 의덕의 거울Pr, 다윗의 닭Pr.  
금주 전례: 해설-형입순, 독서-장현상 부부  
봉헌-유달수 부부  
차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강영진 부부  
봉헌-안철조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45,500원  교무금: 1,108,000원
- 감사헌금: 11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부활 제3주일
- 1. 금주: ①혼인강좌-전 9시30분, 가톨릭센터  
②차량 축복식-광식미사 후
- 2. 성기정회: 1일(전 11시)
- 3. 성체강복 및 조배: 4일(전 10시)
- 4. 성모성심회: 4일(후 3시)
- 5. 병자 봉성체: 5일(후 2시)
- 6. 성소후원을 위한 사순절 폐지저당봉 봉헌바랍니다.
- 7. 차주: ①성소후원 회비 납부주일  
②제속골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③요셉회(후 6시)  
④울브레아(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2,153,250원

**\* 상관** 사 제 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5월은 성모 성월: 성모님의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본받읍시다.
- ◎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일입니다.
- ◎ 아침 미사시간을 5시30분으로 변경합니다.
-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 꾸리아-다음주일  
②성시간 및 성체강복 4일(목) 저녁미사 후  
③사목회 월례회-8일(토) 저녁 8시
- 2.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5일(금) 오전 9시, 해성학교에서(각자 점심 준비)
- 3. 다음주일은 성소주일: 기도와 2차헌금 있습니다.
- 4. 사순절 불우이웃돕기 폐지저당봉 봉헌합니다.
- 5. 사제양성 후원회비 징성껏 납부합니다(세대별 매월 1천원 이상)
- 6. 성당 청소: ①금주-신비로운 장미Pr  
②차주-순교자의 모후Pr.
- 7.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김원석 ②이순자  
봉헌-오철규 가정  
차주 전례: 해설-김영선, 독서-①남현준 ②송정자  
봉헌-이기봉(장논나)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69,200원  교무금: 209,000원
- 2차헌금: 151,31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 부 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사도 5.29) 5월1일 쉼뜰는 날, 10시
- 1. 오늘 평신도 강론: 선교부장 김대현 야고보
- 2. 지속적인 성체조배 교육: 1일~4일 매일 저녁 7시30분
- 3.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5일 전 9시~후 4시  
해성중·고 행동단원, 협조단원 모두 참여바랍니다.
- 4. 구역 반 회장 연수: 2일 전 10:30 미방문 가정 파악
- 5. 성시간 성체강복: 4일 저녁 7시30분
- 6. 성지회 회원 첫 고백성사: 6일 후 5시부터
- 7. 유아 세례: 6일 후 3시, 사부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8. 어린이 첫영성체만 모임: 국교 3학년 이상, 부모감 교우인 세례받지 않은 자녀 포함.
- 9. 전국 M.E 가족 모임: 5일 오전 9시 수원 살내 체육관, 회비-4만원.
- 10. 회의: 꾸리아-7일 후 3시, 부녀회-3일 어머니미사 후, 성지회-7일 공식미사 후.
- 11. 전일을 환영합니다: 코오름APT 이상식(요셉) 9/405 ☎224-7758 이태점(세노비아) 9/606 ☎223-6034 박성현(요한) 7/904 ☎221-8258 박순규(율리아) 8/1206 ☎225-0575 신부중(마르티노) 12/404 ☎221-0328. 장명숙(가타리나) 6/1505 ☎225-6470 극동APT 서영철(야고보) 가/408 ☎225-2608 김길수(마리노) 가/907 ☎222-6658 주공APT 박종훈(모이세) 303/906 ☎86-8657 김완남(가타리나) 104/1317 ☎87-6496
- 지난주 봉헌금: 1,447,340원  교무금: 2,598,000원

천주교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에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5월5일(금) 오전 9시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많은 참여를 바랍니다)